

# 노인의 건강상태와 복약실태

조 원 순  
가천길대학 간호과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복약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249명(남자 :118명, 여자 :131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복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평균 신체 비만도는 여자의 비만 지수가 10.7%로 과체중 상태였으며, 남자의 4.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나이가 많아지면서 비만지수는 감소하였다.

2)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건강평가는 전체노인 249명중 35.3%가 매우건강 내지 건강하다, 33.7% 보통, 30.9%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하였다.

3) 일상생활 활동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능력은 유의하게 저하하였으며, 주관적 건강평가가 낮을 수록 일상생활활동도 유의하게 낮았다.

4) 대상자의 81.5%가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환 보유수는 1-2종류가 85.9%, 3-4종류 13.0%, 5-6종류 1.0%로 평균 1인당 1.6개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환보유 유무와 주관적 건강평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질환보유종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평가도 낮았다.

5) 대상자들이 현재 보유한 질환은 관절염(49.5%), 고혈압(32.0%), 위십이지장궤양(16.1%), 당뇨병(14.6%), 골다공증(10.9%), 심장질환(9.9%)의 순이었으며 이외에 백내장(5.7%), 가려움증(5.2%), 간질환(4.2%), 신장 질환(3.6%), 척추디스크(3.6%), 호흡기질환(2.1%), 결핵(1.0%), 기타질환(1.%)의 순서였다.

6) 대상자들의 주관적 복약방법 인지도는 응답자 175명중 87.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복약순응도는 83.6%였고, 21.6%가 약물 복용시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복합질환 보유 시에는 56.9%가 약물을 병용을 한다하였으며, 약물병용 시에 18.9%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7) 대상자들이 보유한 약물은 1,331종으로 평균 1인이 5.5종류였고, 소화제(79.4%), 외용약(68.7%), 비타민(59.7%), 진통제(59.7%), 감기약(45.3%), 관절염치료제(33.3%), 건강식품(26.7%), 고혈압치료제(25.1%), 위십이지장궤양치료제(24.7%), 완하제(19.8%), 제산제(16.5%), 항생제(16.5%), 당뇨병치료제(10.3%), 강심제(7.0%), 부정맥치료제(4.9%), 이뇨제(4.5%), 협심증치료제(4.1%), 수면제(3.3%) 및 그외에 약물(38.3%) 등 다양한 약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상의 실태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본 연구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2) 노인의 만성질환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와 만성복합질환에 의한 약물비용에 대한 사례조사가 이루어져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예방을 하여야겠다.

3) 상기를 토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 자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